

조선대 태권체조 대회 3연패 압!

음악에 맞춰 품새·발차기 '최고'

세계 태권도 한마당 2007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사진)이 '세계태권도한마당 태권체조부문'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1~4일까지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2007' 청·장·중·여성부 태권체조부문에서 음인대를 제치고 정상에 올라 2005·2006년에 이어 3연패를 이뤘다.

이번대회에는 세계태권도한마당 각 종목별 총 633팀 4천218명이 참가했으며 태권체조부문에는 26개팀이 참가해 11개팀이 본선에서 실력을 거뒀다.

태권체조는 품새 및 5가지 필수 발차기(거듭날차기, 앞돌려차기, 뛰어날차기, 뒤차기, 온몸돌며 후려차기)를 포함해 태권도동작을 음악 또는 기타 악기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한 체조형 연속동작으로 동작의 정확도와 예술성에 따라 순위결정을 하게 된다.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비상'을 주제로 태권도 정신과 품새에서 나타나



는 간인한 힘을 응강스러운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을 태권체조로 형상화 해 심사 위원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25명의 조선대학교 태권학과 1~4학년 남·여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말부터 수업을 마친 후 4~5시간의 맹연습을 통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미현 7언더 7위

LPGA 미즈노클래식 최종

우에다 모모코(일본)가 8년 만에 일본에 미주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우승컵을 안았다.

일본여자프로골프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우에다는 4일 일본 시마의 가지고자마골프장(파72·전50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끄려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정상에 올랐다.

김미현(30-KTF)은 5언더파 67타를 치는 선전을 펼쳤지만 첫날 이븐파 72타에 그친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동7위(7언더파 209타)에 만족해야 했다.

5타를 줄인 안젤라 박(19)과 3언더파 69타를 친 최혜정(23·카스코), 그리고 나란히 2타씩 줄인 이지영(22·하이마트), 송보배(21·슈페리어) 등이 공동9위(5언더파 211타)에 오르는 등 한국 선수 5명이 '톱10'에 들었지만 11년 동안 이어져온 이 대회 무승 행진을 끊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노장 데이비스 건망증 때문에

깜빡 잊고 마크 옮긴 곳에서 퍼팅 2벌타

선두 달리다 결정적 실책 준우승에 그쳐

아시아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불꽃타를 휘두르며 부활의 나라를 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노장 선수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가 '건망증' 탓에 6년 만의 우승 기회를 날려 땅을 쳤다.

4일 일본 시마의 가지고자마골프장(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3라운드 합계 5언더파 209타로 공동5위에 그친 데이비스는 전날 2라운드에서 자진실수를 잊어지지 않았다.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던 데이비스는 2라운드에서 도 13번홀까지 2타를 줄이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었다.

메이저대회 4승을 포함해 통산 20승을 올렸지만 2001년 이후 우승과 인연

을 맺지 못하던 44세의 데이비스에게 찾아온 우승 기회는 그러나 사소한 실수 하나로 물러졌다.

14번홀(파4)에서 데이비스는 그린에서 동반 선수의 퍼팅 라인에 놓인 마크를 살짝 옆으로 옮겼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옮긴 마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을 깜빡 잊고 퍼팅을 했고 '오소 플레이'로 2벌타를 밟았다.

줄지어 더블보기를 적어낸 데이비스는 풀이 죽었고 남은 홀에서 1타도 줄이지 못해 우에다 모모코(일본)에게 공동 선두를 내주고 말았다.

2벌타의 부담은 최종 라운드에도 이어져 데이비스는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제자리 걸음을 걸어 우승 경쟁에 합류조차 못했다.

광주일보 구독신청·배달·전단배포안내 (062)222-8111~8

지역	지국명	전화	배달구역
동 구	남 광	222-9440	학동, 문림동, 소태동, 지원동, 빙림동(일부), 음산동, 월남동, 증심사
	동 명	222-9054	동명동, 짐동, 서석동, 지산동(일부), 동구청, 한국통신, 전대외대
	동 부	225-6001	신수동, 지산동(일부), 풍향동(일부), 두암동(일부), 계림동(일부), 금곡동, 청옥동
중 암	중 암	222-1896	금남로 1-3가, 충장로 1-3가, 광산동, 궁동, 대의동, 블로동, 흥금동,
	중 흥	224-6804	호남동(일부), 금동(일부), 님동(일부), 금남지하상가
	중 장	224-8212	계림동, 증흥동, 우산동(일부), 산수동(일부), 대인시장, 광주고교, 유동(일부), 북동(일부)
남 구	남 부	652-0175	금남로 4-5가,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일부), 북동(일부)
	봉 선	875-6979	방림동, 암월동, 금동(일부), 남동(일부), 통신동(일부), 남광주시장
	백 운	673-4698	봉선동, 주월동(일부), 남부경찰서, 남구청
서 구	진 월	673-1600	주월동(일부), 진월동, 승암동, 승하동, 노대동, 양고동, 대촌동, 광주대, 대성여고, 백문광장(일부)
	광 천	366-8375	광천동, 내방동(일부), 노성동(일부), 양동(일부), 유총동, 덕흥동, 시외버스터미널
	성 무	372-2352	성무동(일부), 회정동(일부), 내방동(일부), 삼무동, 삼무시장
서 구	서 광주	369-0583	월산동(일부), 월성동(일부), 양동(일부), 들판가, 상특회관, 현전, 서부서, 서구청
	문 천	371-9818	쌍촌동(일부), 금호동(일부), 매월동(일부), 미륵동(일부), 금호지구, CBS, 남광병원
	지 평	376-6511	지평동, 미륵동(일부), 삼무지구, 한국은행
화 정	화 일	682-8112	평민지구, 풍암동, 금호동(일부), 매월동
	화 정	375-9662	화정동(일부), 동성동(일부), 주월동(일부), 월산동(일부), 시교육청
	동 광	284-2012	두일동, 풍화동, 기화동(일부), 두암사, 등강대학교, 광주교대대학
북 구	문 충	287-4748	문충동, 응진동(일부), 문충지구, 청소년 수련관, 기화동, 화물터미널, 교도소
	복 광주	525-3761	문암동, 풍림동, 신인동(일부), 일동(일부), 공설운동장
	신 안	512-1732	신안동, 일동(일부), 중화동(일부), 일신빌딩, 신역로, 북광주전화국
양 산	양 산	571-7658	양산동, 연제동, 용두동, 본촌동, 본촌공단
	오 치	266-7801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일곡동, 서산동, 일곡지구, 기계공고, 북부경찰서
	용 봉	522-7752	용봉동, 증흥동(일부), 저남대, 특구청
광 산	우 산	512-8116	우산동, 증흥동(일부), 두암동(일부), 무등도서관
	광 산	944-0444	송정동, 소촌동, 신촌동, 우산동(일부), 도산동, 송촌동, 은수동, 암곡동, 남산동, 육동, 하신동, 유계동, 광신동, 산미동, 신운동, 두점동, 원동, 등호동, 삼각동, 실거동
	철 단	973-2900	신천동, 신기동, 희계동, 비아동, 청단단지, 월출동
하 님	월 국	961-2339	월곡동, 은사동(일부), 산정동, 하남동(일부), 무진로변, 금호, 한성, 유품, 시연, 스위트
	하 님	951-1237	문화동, 청룡동, 하남동(일부), 혁성동, 친수동, 수원동, 도천동, 하남공단

총무 및 배달사원을 모집합니다.

◆신문배달을 최망하시는 분은 해당지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남·여(주부, 학생, 일반), 총무경험자 우대 *급료: 상당 후 결정 *최망자 한 기숙사 제공

모집



이은정 2시간29분32초 우승

3년만에 2시간20분대 기록

중앙서울마라톤 여자부

'여자 장거리 기록 제조기' 이은정(26·삼성전자)이 한국 여자 마라토너로는 3년만에 처음 2시간20분대 기록을 냈다.

이은정은 4일 오전 서울 잠실~성남 코스에서 열린 2007 중앙서울마라톤 여자부 룰코스(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29분32초에 결승선을 끊어 종전 대회 기록(2시간30분50초)을 깨고 우승했다.

이은정은 특히 자신이 2004년 3월 서울 국제마라톤에서 2시간26분17초로 끝인한 이후 3년8개월 만에 처음 2시간30분 벽 안으로 진입해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향한 희망을 키웠다.

남자부에서는 조슈아 첼링가(케냐)가 2시간8분14초의 비교적 좋은 기록으로 피니시 라인을 끊었다.

2시간7분05초의 개인 최고기록을 자낸 첼링가는 지난 3월 서울 국제마라톤에서 이봉주(삼성전자)가 세운 2007 국내 코스 최고기록(2시간8분04초)에 불과 10초 뒤졌다.

남자 국내 선수로는 '포스트 이봉주 세대'의 선두 주자로 꽂히는 지영준(코오롱)이 2시간16분10초로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목표로 잡았던 2시간10분 이내 진입에는 실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비커!

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SK텔레콤 T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원주 동부의 경기에서 서울의 이상민(오른쪽)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동부가 85-7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스포츠 중계

5일(월)

▲2007 네이션와이드투어 챔피언십 FR (07:00-SBS골프)

▲07/08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우리은행>(18:50-SBS스포츠)

▲올림픽 야구 대표팀 평가전<올림픽대표팀 : 상비군>(12:30-MBC ESPN)

▲제2회 WFTF 세계권도 품새 선수권대회(13:00-KBS N SPORTS)

6일(화)

▲07/08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 선더랜드>(05:00-SBS ESPN)

7일(수)

프로 2년생 조영란 생애 첫 우승

시즌 9승 도전 신지애 공동 4위

KLPGA KB 스타투어 5차대회

한국여자프로골프 2년차 조영란(20·하이미트)이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대회에서

상금 4위(이븐과 288타)에 머물렀다.

신지애는 11번홀까지 6개의 버디를

몰아쳐 역전 드라마를 쓰는 듯 했지만 12번(파3), 13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로 주춤했

더니 14번홀(파4)에서는 두번쨰 샷을 아웃

오브 바운즈(OB) 구역으로 날려보내며 트

리플보기를 적어내 추격의 동력을 잃고 말

았다. 신지애가 프로 데뷔 이후 OB를 낸 것

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2008년 대비

개강

11월 12일

landkor.com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선착순 60명 모집

<div data-bbox="78